# “병실서 ‘서시’ 만나고 시 쓰기 시작했다”

**제1회 윤동주서시문학상 수상 이경림 시인**

## 상 받을 자격 있는 지…많이 미흡하고 부끄러워
##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윤동주의 맑은 詩 필요
## 문학은 때 없어…40대 등단, 늦깎이라 생각 안해

▶광주일보와 계간 ‘시산맥’이 제정한 제1회 윤동주서시문학상에 선정된 이경림 시인.

제1회 윤동주서시문학상에 선정된 이경림 시인은 “수상 소식은 내 것이 아닌데 잘못 날아온 듯한 낭패감이 들었다”며 “언제 한 번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진정 괴로워해보지 못했다”며 자신을 낮췄다.

최근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시인은 수상 소감과 시를 쓰게 된 계기, 향후 계획 등을 풀어냈다. 인터뷰를 통해 알게 된 흥미로운 사실 가운데 하나는, 이 시인의 하나 뿐인 아들 이름이 ‘윤동주’라는 거였다. 아마도 이 시인은 윤동주와 뗄 레야 뗄 수 없는 문학적 인연을 맺고 있는 듯 했다. 이 시인은 “병들고 가난한 어미가 아들에게 줄 수 있었던 유일한 선물이 동주라는 이름이었다”면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희망이자 당부였다”고 덧붙였다.

-윤동주의 ‘서시’는 전 국민이 애송하는 시다. 제1회 수상자로 선정된 소감이 남다를 것 같다.

▲ 먼저 시를 쓰도록 용기를 준 광주일보와 시산맥에 감사드린다. 그러나 과연 내가 윤동주의 이름으로 제정된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시인인가 생각하니 면구스럽고 부끄럽다. 윤동주 시인은 ‘志操(지조) 높은 개는 밤을 새워 어둠을 짖는다’고 했는데 나는 무슨 지조도 없이 다섯 권이나 시집을 낸 무책임한 사람이다.

-시를 쓰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다. 원래부터 문학에 관심이 많았나?

▲ 내 문학의 최초 스승은 아버지다. 한학자이자 문청이었던 아버지는 어린 시절부터 내게 훌륭한 시인들의 시를 들려주시고 동서양의 고전들을 소개해줬다. 아버지는 임종 이틀 전에도 선물로 만년필 세 자루를 줬다. ‘글쟁이는 어떤 상황에도 정직해야 해’라는 유언과 함께.

-보통 문인들은 본격적으로 문학을 공부하게 된 계기가 있다. 이 시인도 그럴 것 같은데.

▲경북 문경에서 태어나 중학교 때 서울로 전학을 왔다. 그리고 줄곧 서울과 인천에서 생활했다. 여고시절 문학의 밤 행사에서 시를 낭송하기도 했지만, 결혼 이후로 문학과 멀어졌다. 결정적으로 시를 써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젊은 시절 오랫동안 공황장애를 앓으면서다. 병실에 누워 있는 동안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와 ‘또 다른 고향’ 같은 윤동주의 시를 읽으며 위안을 받았다. 시를 써야겠다는 생각이 다시 싹텄다.

-등단과정 그리고 영향을 받은 시인이 있다면.

▲80년대 중반 우연히 오규원 시인을 한 강연장에서 만나게 됐다. 오 시인을 만나면서 시에 대한 고정관념이 깨졌는데, 마치 개안(開眼)을 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한마디로 문학적 충격이었다. 오규원 시인의 강의를 통해 문학적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 같다. 당시 함께 공부했던 최정례, 이문숙, 조은 등은 지금 모두 한 명의 당당한 시인으로 성장했다.

-2017년은 윤동주 시인 탄생 100주년 되는 해다. 내년에 생가와 묘지를 방문한다고 들었다.

▲평소에 가 보고 싶었던 만큼 즐겁고 경건한 마음으로 다녀올 예정이다. 윤동주는 한글로 시를 쓰고 문학을 매개로 독립운동을 했던 위대한 민족시인이다. 자고나면 시끄러운 뉴스로 가득한 작금의 세상은 너무 어지럽고 혼란스럽다.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끝내 성역이어야 할 문화예술까지 비정상적이다. 이런 때에 윤동주 시인의 조국에 대한 지순한 열정과 존재의 근원을 바라보는 맑고 깨끗한 정신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며 지켜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한다.

-주위에서 늦깎이 시인이라는 말을 듣지 않는가?(웃음) 요즘 들어 나이를 초월해 시를 쓰는 이들이 많아졌다. 시를 쓰고자 하는 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 글쎄, 나는 한 번도 늦깎이라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철든 이후 시는 늘 내 곁에 있었다. 사십이 조금 넘어 문단에 나왔을 때 늦깎이라고 서슴없이 부르는 것을 보고 조금 놀랐다. 문학에 때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어떤 작품을 써내느냐 하는 것만이 중요할 뿐이다. 마찬가지로 시를 쓰든 다른 무엇을 하든 세상에 늦깎이는 없다고 본다. 열정을 가지고 도전한다면 문이 열릴 것이다.

-앞으로의 창작이나 활동 계획이 있다면.

▲이번 문학상은 윤동주의 문학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안다. 많이 미흡하고 부끄럽지만, 마지막까지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올곧은 시정신을 견지하며 좋은 작품을 쓰도록 노력하겠다. 무엇보다 ‘윤동주 서시 문학상 1회 수상자’라는 이름에 누가 되지 않는 시인으로 남도록 노력하겠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윤동주해외작가상 김미희 시인 해외작가특별상 최연홍 시인

윤동주서시문학상 본상과 함께 제정된 ‘윤동주해외작가상’과 ‘윤동주해외작가특별상’ 부문도 첫 수상자들이 가려졌다. 윤동주해외작가상은 해외에서 우리말로 시를 쓰는 시인들을 대상으로 한 공모다.

‘수선집 그녀 1’외 4편으로 첫 수상자로 선정된 김미희 시인은 충남 서산 출생으로 현재 달라스한인문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김 시인은 수상 소감에서 “시는 고달픈 이민 생활에서 황폐해져 가는 저에게 숨통이었고 질식할 위기에 찾아온 산소호흡기였다”면서 “유배지에 사는 시인들을 위해 이 상을 제정해준 광주일보와 시산맥에 모든 ‘유배자’를 대신해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외에서도 꾸준히 윤동주 시인을 기리는 모임을 펼쳐온 이에게 주는 윤동주서시해외작가특별상 수상은 그동안의 노고에 보답하는 의미가 깃든 상이다. 첫 수상자로 선정된 최연홍 시인은 워싱턴에서 거주하며 윤동주 시인을 기리는 모임을 꾸려 활동을 펼쳐왔다.

충북 영동 출신인 최 시인은 연세대와 인디아나 대학에서 공부했으며 1963년 ‘현대문학’으로 등단했다. 그의 시편들은 미국의 여러 문예지에 발표되었으며 미의회 도서관에서 계관시인 초청으로 한국시인으론 처음 시를 낭송하기도 했다.

김미희

최연홍

최 시인은 수상소감에서 “워싱턴 자생의 윤동주문학회를 출범시키는 등 한국문학의 지평 확대에 작은 기여를 했다”면서 “한국인 모두 ‘지금은 동주를 위해 울어야 할 때’ 인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천기자 skypark@

## 김인호 사진전

### 내달 13일까지 화엄사 보제루

▶‘아! 노고단의 사계’

구례 지역 아름다움을 렌즈에 담고 있는 김인호씨가 ‘아我! 노고단의 사계’를 주제로 28일부터 11월13일까지 화엄사 보제루에서 사진전을 연다.

구례군청 사진담당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김씨는 이번 전시에서 지리산 노고산을 찍은 사진 45점을 선보인다.

운무에 쌓여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모습, 하늘거리는 억새풀이 우거진 정상, 구절초가 수줍게 고개 내민 산등성. 다양하게 찍은 노고단 사진 속에는 숨은 노력이 숨어 있다.

이번 전시에서 출품한 사진들은 지금까지 1000번이 넘게 지리산을 오르며 찍은 작품들이다. 사계절을 담기 위해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오르는 것은 물론 마음에 드는 한장을 건지기 위해 같은 장소를 여러번 찾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첫번째 개인전 ‘과거-현대-미래를 이어주는 산수유마을’을 열며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현천·산동마을을 선보였다. 문의 061-782-7600.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발산마을의 어제와 오늘

### 서영실·박화영 2인전…‘뽕뽕브릿지’서 30일까지

두 젊은 여성작가가 본 발산마을은 어떤 모습일까.

서영실·박화영 작가가 발산마을 공유공간 ‘뽕뽕브릿지’에서 ‘발산포타미아’를 주제로 30일까지 공간공유프로그램 결과보고전을 연다. 전시 주제는 ‘메소포타미아’에서 따온 말로 발산마을에서도 어떠한 문명(문화)이 생겨났을 것이라는 작가 시각을 담았다.

전시장안으로 들어서면 대형 설치작품이 눈길을 끈다. 서 작가가 작업한 ‘cobweb’이다. 마을에서 발견한 특징을 모티브로 작업했으며 주민 염원을 담은 설치물을 통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박 작가는 야외 전시장에 작은 밭을 조성해 채소를 키우는 ‘소규모 경작’작업을 선보인다. 경작을 하는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헌신과 안정감을 표현했다. 바쁘게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잠시 쉬어가는 여운을 선사한다. 박 작가는 28일 재배한 야채를 관객들과 함께 나누는 퍼포먼스를 펼칠 예정이다. 문의 010-5683-0508. /김용희기자 kimyh@

서영실 작 ‘cobweb’